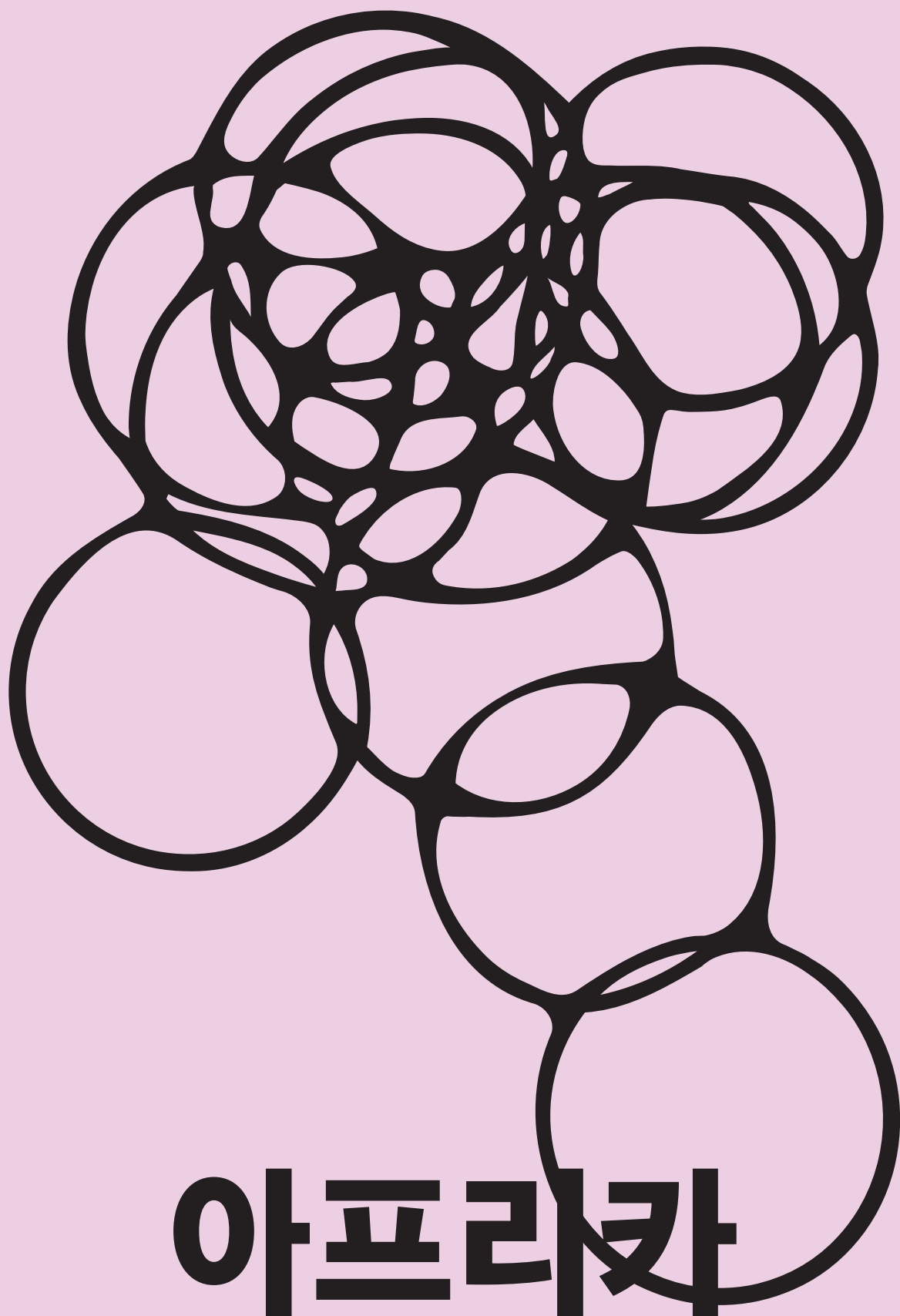




아프리카
Africa

드림 스케이프

큐레이터

라사나 이고 디아라
다야나 바피나

참여작가

알라 헤이르
알레 아시 위베르
아마두 사노고
아미나 벤부슈타
아미나 주비르
암사투 디알로
앤드류 차방구
바카리 에마뉴엘 다오
바르텔레미 토고
보두앵 무안다
조르주 센가
가이 우에테
하메딘 케인
하셀 알 람키
이노우라즈 + 정가악회
자말 메사니
제임스 바너
지한 엘 타흐리
카릴 넴마우이
라닌 생테티엔 엔지
마마두 코나테
마리아 막달레나 캄포스-폰스
마리오 마실라우
음바예 디오프
멜린다 포른
모하메드 체라디
모하메드 라우리
모우노 데지레
나오미 루렌도
니르비다 알렉
라지 바민데레
사디쿠 옥페조
세이두 케이타
타미 뱅키라네
우체 옥파-이로하
유네스 바바 알리
젬바 루잠바

광주 예술의 전당 별관동

Dream Scape

Curators

Lassana Igo Diarra
Dayana Vafina

Artists

Ala Kheir
Allé Assi Herbert
Amadou Sanogo
Amina Benbouchta
Amina Zoubir
Amsatou Diallo
Andrew Tshabangu
Bakary Emmanuel Daou
Barthélémy Toguo
Baudouin Mouanda
Georges Senga
Guy Wouete
Hamedine Kane
Hashel Al Lamki
Inouraz + Jeong Ga Ak Hoe
Jamal Mehssani
James Barnor
Jihan El-Tahri
Khalil Nemmaoui
Lanin Saint Étienne Yeanzi
Mamadou Konaté
María Magdalena Campos-Pons
Mario Macilau
Mbaye Diop
Melinda Fourn
Mohamed Cherradi
Mohammed Laouli
Mounou Désiré
Naomi Lulendo
Nirveda Alleck
Raji Bamindele
Sadikou Oukpedjo
Seydou Keita
Thami Benkirane
Uche Okpa-Iroha
Younes Baba Ali
Zemba Luzamba

Gwangju Arts Center Annex Building

드림 스케이프

라사나 이고 디아라

아프리카는 어떻게 꿈꾸어 왔나?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것을 꿈꿨다. 또 다른 이들은 아프리카가 통합되는 것을 꿈꾼다.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흑인 교수인 은조키 웨인은 “우리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되 서로의 유사성을 살리는 화합을 통해” 아프리카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유려하게 표현했다. 차이와 유사성에 대한 탐구는 예술, 디지털 행동주의, 음악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화합은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분리와 통일, 다양성과 유사성,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우리의 꿈, 열망, 문화, 정체성은, 마치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사인곡선의 파동처럼, 끊임없는 배움과 거부, 빌리는 것과 주는 것의 과정 속에 갇혀 있다. 이 끝없는 움직임을 단일한 공간에 포착함으로써 개체들이 혼합되거나 대화하거나 명확하게 분리되는 영역인 «드림스케이프»가 구성된다.

아프리카는 무엇을 꿈꾸는가?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국가에 사는 모두를 대표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임에도, «드림스케이프» 내부의 역동성은 이 전시의 예술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우리가 선택한 예술가들이 방대한 «드림스케이프»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두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있는 특별함을 드러낸다. 이 파빌리온은 아프리카 대륙의 더 많은 국가들을 대표하는 향후의 전시회를 위한 일종의 서문이라 할 수 있다. «드림스케이프»의 여정은 후기 소비사회와 기후 문제를 거쳐, 사물과 기억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고, 재맥락화된 정체성을 표현하고, 신체와 공간의 상호작용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평범함 속의 특이점을 발견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오늘, 20개국의 예술가들이 끝없는 «드림스케이프»의 문을 살짝 열어 둘 것이다.

꿈이란 무엇인가?

케냐 작가인 응구기와 씨웅오는 예술을 의식적으로 꿈을 꾸는 행위라고 부른다. 의식적인 꿈을 통해 개인 또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것은 현 상황에 도전하는 엄격한 과정을 부추긴다. 이 전시의 작품들은 그런 꿈과도 같은 환상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깨어 있는 꿈으로 오며, 여기서 이들의 작품은 작가들의 미묘한 세계관과 세세한 디테일, 사회적 현안, 그 외 낯선 것들 사이의 놀라운 연결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꿈꾸기와 연관된 함의를 질리도록 암시하기보다는 그냥 지나

쳐 가며, 예술가들은 야망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상호 주관성에 도전함으로써 과거를 숙고하고, 시각적인 반사실적 분석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며, 꿈의 힘으로 다양한 미래를 상상한다.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그 정수를 빨아들인 후, 자신들의 경험을 독특한 시각적, 청각적 서사로 변환시킨 그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대륙의 «드림스케이프»에 새겨넣고 그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들의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들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큐레이터

라사나 이고 디아라

라사나 이고 디아라는 아프리카의 사진 비엔날레인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 제14회 총 큐레이터 및 예술 감독이다. 그는 2019년에 제12회의 총괄 대표로도 활동했다. 또한 2024년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아프리카 파빌리온 디렉터를 맡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말리 바마코에 위치한 갤러리 메디나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발라니스 출판사의 설립자이다. 2017년에 『바마코의 심장에서』를 비롯한 여러 설화, 만화, 소설, 카탈로그 및 예술 도서를 출판했다. 그는 국내외 전시회 큐레이터로서 활동하였으며, 여기에는 범아프리카 투어 전시 «바마코 드림 30», 2020년에 바마코에서 열린 «60 아르 뒤 말리», 2017년 아테네 «도큐멘타 14»에서 «팀북투에서의 배움», 그리고 카셀에서 «알리 파르카 투어, 자랑스럽고 건강한» 등이 포함된다. 그는 다카르, 라고스, 라바트에서 전시를 개최해왔다. 국제 비엔날레 협회 이사회 회원이며, 전 세계의 여러 수상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야나 바피나

다야나 바피나는 현재 제14회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 아프리카 사진 비엔날레의 부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말리와 의 인연은 볼로냐 대학에서의 논문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말리의 상점 공간을 통해 도시 시각 문화에 대해 연구했다. 2021년 이후로 그녀는 말리 바마코의 갤러리 메디나에서 여러 전시의 기획에 참여했다. 이 중에는 제13회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 아프리카 사진 비엔날레의 «탐텐» 전시가 있다. 그는 브뤼셀의 한 예술 자문 회사에서도 근무했다. 그의 학술적 관심사는 탈식민주의 이론, 사진, 미디어 및 시각 연구를 포함한다.



참여작가

음바에 디오프

음바에 디오프(1981년 세네갈 리처드 톨 출생)는 스위스 제네바 예술 디자인 대학교와 다카르의 순수 미술 대학교에서 현대 예술 실습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세네갈의 일상 도시 풍경과 건축 형태,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과 서양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재정의하는 사회 정치적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동영상, 퍼포먼스, 드로잉에서부터 설치까지, 그의 독창성은 거의 강박에 가까운 정도로 흑백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는데, 이는 재현된 장면을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현재진행 중인 패러다임 변화를 드러내며, 특히 전통, 도시 인프라,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새로운 기술 사이의 이분법을 강조한다.

하메딘 케인

하메딘 케인(1983년 모리타니 출생)은 다카르, 브뤼셀 및 파리를 오가며 활동하는 세네갈 출신 예술가이자 감독이다. 그의 작품은 유랑, 방향, 계승 및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독립

후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의 최근 역사, 특히 세네갈의 역사에 질문을 던지며, 아프로-노스텔지어와 아프로-유토피아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 격변과 열망에 대해 기록한다. 그는 또한 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프리카계 이민자 문학이 정치, 사회 및 환경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아마두 사노고

아마두 사노고는 1977년 세구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들은 귀족이자 농부였던 세누포족으로, 케네두구 왕국(빛의 나라)에 속한 말리 남부 지역의 시카소 지역에 장고롤라 공동체를 세웠다. 그의 미술 공부는 조국의 민족적 관습을 미학적으로 추상화되고 해체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말리에서의 성장 경험을 기반으로, 그는 세계 정치, 언론 및 사법제도의 섬세하고 세밀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하셀 알 람키

케냐 출신 어머니와 아랍에미리트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화가이자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 하셀 알 람키는 인간과 그들의 서식지, 야생과 건축물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2011년 그는 뉴욕 시의 파슨스 뉴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미술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중남미 및 북아메리카에서 여러 자선사업 협력 프로젝트에 기여했다. 그는 재난에 시달리는 과테말라와 아이티, 그리고 미국의 저소득 공동체를 위해 일했다. 뉴욕에서 7년을 보낸 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미국 뉴멕시코주 타오스 사이에서 살며, 후기 소비사회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디쿠 옥페조

토고의 케타오에서 1975년에 태어난 사디쿠 옥페조는 코트 디부아르의 아비장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인들의 근원과 유산에 대한 개념에 질문을 던지는 반인반수 캐릭터를 특징으로 한다. 그에게 이야기, 신화, 의식 및 마술은 모두 인간이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낸 시도이자 도구들이다. 인간과 동물성 사이의 모호한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그는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 관계의 잔인함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우리의 동물성을 전제로 하여 인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또한 서아프리카의 역사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유네스 바바-알리

유네스 바바 알리는 1986년 모로코의 우즈다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카사블랑카와 브뤼셀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스트라스부르 파리 국립 장식예술학교에서, 그리고 2011년 프로방스 지역예술학교에서 수학했다. 2012년 다카르 아프리카 현대 미술 비엔날레에서 레오폴드 세다 르생고르상, 2014년 브뤼셀에서 열린 벨기에 아트 프라이

즈 아트 컨테스트에서 보고시안상을 비롯하여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베를린의 도큐멘타 14, 마라케시 비엔날레, 다카르 현대 아프리카 미술 비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 전시회와 비엔날레에서 전시되었고, 브뤼셀의 카날 풍피두 센터, 오스텐트의 뮤지, 그리고 프랑스의 현대미술지방재단을 포함한 여러 유명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아미나 주비라

아미나 주비르는 프랑스의 파리와 알제리의 알제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이자 시각예술가인 그녀는 특정 공간에서 몸이 지니는 개념에 대해 연구한다. 전 세계의 도시 및 농촌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여성, 남성, 동물, 물건의 몸을 활용한다. 그의 작품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의 서사시와 신화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사고 및 역사적 사고를 탐구한다.

멜린다 포른

멜린다 포른(1995년생)은 프랑스-베냉 출신 예술가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예술은 주로 조각을 통해 표현되며, 종종 사진이나 디지털 오브제 시리즈를 통해 설치 작품의 일부가 된다. 그는 주로 보석과 일상적 사물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들은 그 자체로 조각이자, 이야기, 기억, 의미로 가득한 사물이다. 작가는 냄비에서 스토브까지 이러한 대상물의 형태를 차용하면서 형태를 다시 만들고, 기능을 반전시키며, 용도를 뒤바꾸는 한편 이들을 보석처럼 장식한다.

나오미 루렌도

나오미 루렌도(1994년 프랑스 출생)는 세네갈 다카르에 거주하는 프랑스-과들루프-콩고계 예술가이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녀는 어린 시절을 카리브 해와 프랑스 사이를 여행하며 보냈다. 사진, 도자기, 설치물,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그는 작품에서 단어, 의미, 물건 및 정체성의 '오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그는 패션 이미지, 키치한 장식, 실내 공간, 건축 패턴부터 식물 모티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리적 공간에서 이미지와 상징을 정리하여, 그것들이 특정한 영역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영역은 종종 '이국적'으로 여겨지며, 상상이나 환상 속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가이 우에테

가이 우에테는 카메룬 최대의 도시 두알라에서 성장했으며 조각과 회화를 공부했다. 후에 브뤼셀과 파리로 이사하여 학업을 계속했다. 현재는 두알라와 엔트워프에서 살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예술가로서 암스테르담의 라익스 아카데미에서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에테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사회 현실에서 영감을 받아 억압, 이주, 환경오염, 소외와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조각, 설치물 및 사진을 만들어 차별을 조장해온 관습적인 태도를 깨부순다.

바르텔레미 토구오

바르텔레미 토구오는 1967년 카메룬에서 태어나 현재 파리와 카메룬의 반준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의 예술적 여정은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 예술 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프랑스의 그르노블 미술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클라우스 린케의 스튜디오에서 일했으며 뒤셀도르프 예술 콘스트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토구오의 창작 활동은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세계의 역기능을 들추고 비판하는 의도로 이루어진다. 그의 작품은 외국인, 이주자 및 이민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을 탐구한다.

보두앙 무안다

1981년 콩고 브라자빌에서 태어난 보두앙 무안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사진작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신을 '인생의 사진작가'로 소개하는 무안다는 현실주의, 시적 표현 및 내면에 대한 탐구로 특징지어지는 시리즈를 만든다. 그의 사진 여정은 1993년에 시작되었으며, 직후에 현지 신문에 실기 위해 브라자빌의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포토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프리카 사진계의 주목할 만한 인물로 등장한 무안다는 2009년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에서 아프리카 댄디와 관련된 독특한 의류 스타일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SAPE(우아하고 세련된 사람들)를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엠마누엘 다우

바카리 엠마누엘 다우는 바마코 국립예술연구소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지닌 그의 작업은 보도사진과 예술사진의 경계에 위치하며, 각종 기호, 상징 및 지역 가문의 언어에 주목한다. 그는 현지 및 외국 언론과 협력하고 기업 및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작업한다. 1994년 '말리의 이미지' 협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다. 2009년에는 디지털 클럽을 설립하여 열정적인 사진작가들의 그룹을 만들었으며, 2011년에는 EPP의 회원이자 공동 설립자가 되었다.

마마두 코나테

마마두 코나테는 말리 사진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1959년 바마코에서 태어나 1988년에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바마코의 켈라 포크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결혼식, 세례식 등을 기록했다. 코나테의 관심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데 있다. 그는 작은 물건, 파편 및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 속에서 찾은 평범한 것과 종종 간과되는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체 옥파-이로하

우체 옥파-이로하는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톤의 노스웨스턴 대학 박사 과정생으로, 재현의 양식과 이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다.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구성되었지만 21세기 사회에 의문을 제기하는 예술가와 학자들과 관련성

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라고스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사진 학교 응레레 연구소의 설립자 겸 소장이다. 그는 블랙박스 포토 콜렉티브로 알려진 나이지리아 사진 단체의 창립 멤버이며 2009년 인비저블 보더스 트랜스-아프리카 사진 여행 그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다.

마리오 마실라우

마리오 마실라우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이자 활동가로서 사진 작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모잠비크 예술의 새로운 세대의 주요 인물들 중 하나로 평가된다. 1984년 맵투토에서 태어났다. 그의 작품은 고국과 해외에서 열리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꾸준히 소개되었다. 마실라우는 사진이 모잠비크와 기타 지역의 삶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밝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알라 헤이크

알라 헤이크는 수단 출신의 사진작가이다. 그는 2005년 기계공학 학위과정을 끝내고 취미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카르툼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그의 사진 작업은 자신이 자란 도시와 소통하려는 노력이다. 헤이크의 이미지는 도시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도시의 현재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섬세한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는 현재 사진 플랫폼 TOV를 운영하며 수단에서 사진작가들과 일반 대중에게 교육, 네트워킹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사진을 통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임스 바너

1929년 가나에서 태어난 제임스 바너는 1950년대 초반에 아크라에 유명한 예버 영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대화와 하이 라이프 음악으로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독립을 맞이하려는 국가의 모습을 담았다. 1959년 그는 런던에서 학업을 계속했고, 영향력 있는 남아프리카 잡지 『드럼』을 위한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 시대의 정신과 런던에서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로서의 경험을 반영했다. 그는 1970년대 초반에 가나로 돌아와 가나 최초의 컬러 프로세싱 랩을 설립하면서, 인물 사진작가로서의 작업을 계속하고 음악 분야에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1994년 런던으로 돌아갔다.

지한 엘-타흐리

지한 엘-타흐리는 수상 경력을 지닌 감독, 작가, 프로듀서, 시각예술가이다. 이집트와 프랑스 국적을 가진 그녀는 1990년에는 BBC, PBS, Arte 및 기타 국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제작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국제 기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아프리카 영화 제작자 길드의 회계를 맡았으며, 범아프리카 영화 연맹의 지역 사무국장, 포커스 피쳐의 아프리카 퍼스트 프로그램 자문위원이었다. 또한 다큐멘터리 캠퍼스의 멘토도 역임하였다.

니르베다 알렉

니르베다 알렉은 1975년 모리셔스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 남아프리카의 미카엘리스 미술학교에서 미술 학사학위를, 2001년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미술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레반논, 말리,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9년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와 우아가두구에서 열린 RIPO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알렉은 모리셔스의 마하트마 간디 인스티튜트 미술학부에 머무르며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피부색에 따라 건조 후 색상이 변화하는 점토의 특성을 탐구한다.

세이두 케이타

저명한 아프리카 인물 사진작가 세이두 케이타는 1921년부터 2001년까지 말리의 바마코에서 살았다. 독학으로 사진가가 된 그는 1948년에 스튜디오를 개업하고 나중에 유명세를 얻은 인물 사진을 전문 분야로 삼았다. 그는 1990년대 서구에서 유명해졌다. 1994년 파리의 까르띠에 파운데이션에서 첫 번째 개인전이 열린 이후, 전 세계의 다양한 박물관, 갤러리 및 재단에서 많은 전시회가 이어졌다.

칼릴 넴마우이

1967년에 태어난 칼릴 넴마우이는 초기부터 사진과 필름 인화 과정의 마법을 발견했다. 그는 모로코와 프랑스에서 학문적 탐구를 지속했고, 1993년에 첫 사진을 발표한 후 사진에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1997년에 첫 전시회를 개최했다. 짧은 기간의 고전적인 초상사진 시기를 거친 후 모로코를 떠나있다가 <나무의 집> 시리즈와 같은 풍경사진으로 돌아왔다. 이 시리즈로 2010년 프릭스 픽테 수상 후보로 올랐으며 2011년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에서 국제 프랑코포니 상을 수상했다. 모로코와 유럽에서 여러 개인 및 단체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2011년 파리 시테 데 재르 예술의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앤드류 차방구

1966년 소웨토에서 태어난 앤드류 차방구의 사진은 수많은 전시회에서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은 초현실적인 연기 같은 조명으로 특징 지어지며, 아프리카 도시의 흑인 공동체의 의식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는 사진작가 유망주들을 가르쳤고, 1995년에 어린이 사진 워크숍에서, 그리고 1998년에는 마켓 포토 워크숍에서 가르쳤다. 또한 2008년에 나이로비의 고에테 문화원에서 <기억상실증: 플랫폼 III>이라는 사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조지 센가

조르주 센가는 1983년 루분바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2009년 루분바시 대학에서 언어와 경연을 공부했다. 2009년에는 스페인의 타리파에서 열린 제2회 아프리카 사진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에 루분바시의 프

랑스 문화 센터에서 전시를 했다. 2010년대부터 버려진 물건을 들여다보는 방식의 사진 시리즈를 작업 중이다. <발자국>이라는 제하의 이 시리즈는 큐레이터 시몬 자미에 의해 2010년 루뭉바시 비엔날레 참여작으로 선정되었다.

-
-
-

주최

갤러리 메디나, 궤앙트르 드 바마코

큐레이터

라사나 이고 디아라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다야나 바피나

참여작가

알라 헤이르, 알레 아시 위베르, 아마두 사노고, 아미나 벤부슈타, 아미나 주비르, 암사투 디알로, 앤드류 차방구, 바카리 에마뉴엘 다오, 바르텔레미 토고, 보두앵 무안다, 조르주 센가, 가이 우에테, 하메딘 케인, 하셀 알 람키, 이노우라즈 + 정 가약희, 자말 메사니, 제임스 바너, 지한 엘 타흐리, 카릴 냄마우이, 라닌 생테티엔 엔지, 마마두 코나테, 마리아 막달레나 캄포스-폰스, 마리오 마실라우, 음바에 디오프, 멜린다 포른, 모하메드 체라디, 모하메드 라우리, 모우노 데지레, 나오미 루렌도, 니르비다 알렉, 라지 바민데레, 사디쿠 옥페조, 세이두 케이타, 타미 벵키라네, 우체 옥파-이로하, 유네스 바바 알리, 젬바 루잠바

협력

셀레베 윤, 타바리 아트스페이스

Dream Scape

Lassana Igo Diarra

How has Africa been dreamed of?

Some dreamt of dividing Africa. Others dreamt of Africa being united.

Black feminism professor, Njoki Wane, beautifully articulated that an African renaissance can be achieved “through unity by acknowledging our differences and capitalizing on our similarities.” Explorations of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re shown through art, digital activism, and music. Yet, despite these efforts, there remains a palpable sense of incompleteness in our unity. Human nature is inherently restless, constantly navigating the tension between separation and unity, diversity and similarity, individual and communal. Our dreams, aspirations, cultures, and identities—akin to sinusoidal waves reflecting off each other—are caught in the perpetual process of learning and rejecting, borrowing and giving. Capturing this endless motion in a single space creates a Dreamscape—a realm where entities blend, converse, or stand distinctly apart.

What does Africa dream of?

Although answering this question for every person across the 54 countries of the continent is a monumental challenge, the dynamics within this Dreamscape are manifested in the art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While our selection of artists cannot substitute the multitude of voices populating our vast Dreamscape, it exposes the particularities found in it. We treat this pavilion as a preface to future exhibitions representing more countries from the continent. The path of the Dreamscape passes through the notions of post-consumerism and climate issues,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objects and memories, reveals recontextualized representations of identities, discloses the interaction between body and space, and discovers previously hidden particularities of the ordinary. Today, artists from 20 countries will leave the door to the limitless Dreamscape ajar.

What is a dream?

A Kenyan writer, Ngugi wa Thiong’o, calls art an act of conscious dreaming. Imagining a better life for oneself or for all through conscious dreaming incites the rigorous process of challenging the status quo of things.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come to us as such dreamlike visions or as a waking dream, where their media is the primary vehicle for communicating the artists’ nuanced views of the world, the minute details, the social urgencies,

and the surprising connections between otherwise unfamiliar things.

Going past rather cloying connotations associated with dreaming, the artists sustain a balance between aspirations and realism: digesting the past through challenging intersubjectivity, contemplating the present through visual counterfactual analysis, and envisioning different futures with the power of dreaming. Having breathed the air and absorbed the essence of their native lands before transforming their experiences into unique visual and audible narratives, they inscribe their voices in the Dreamscape of a continent united and proud of its diversities. Their artworks help us overcome the separateness between us and our differing views of reality.

Curators

Lassana Igo Diarra

Lassana Igo Diarra is the General Curator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14th edition of Les Rencontres de Bamako, Biennale Africaine de la Photographie, for which he was a general delegate in 2019 for the 12th edition. He is the director of the Pan-African Pavilion at the 15th edition of the Gwangju Biennial (South Korea) 2024. He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Galerie Médina, located in Bamako, Mali, since 2011 as well as Founder of Éditions Balani's. Igo has published several books of tales, comics, novels, catalogs, and Art books, including *Au cœur de Bamako* in 2017. Curator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Bamako Dream 30* a pan-African touring exhibition, *60 Arts du Mali* in Bamako in 2020, for Documenta 14 in 2017: *Learning from Timbuktu* in Athens, and *Ali Farka Touré, proud and well* in Kassel. He has produced exhibitions in Dakar, Lagos, and Rabat. Igo is a member of the board of IB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iennials, and also a jury member and advisor for several prizes around the world.

Dayana Vafina

Dayana Vafina currently holds the position of assistant curator for the 14th edition of Les Rencontres de Bamako, the African Biennale of Photography. Her connection with Mali began with her thesis at the University of Bologna, which explored the urban visual culture of Mali through its shop signs. Since 2021, she has curated and co-curated several exhibitions at the Galerie Médina, Bamako, Mali, including an exhibition "Top Ten" featured in the program of the 13th edition of the Biennale Africaine de la Photographie. She worked at an art advisory firm in Brussels, Belgium. Her academic interests include post-colonial theory, photography, media, and visual studies.

Artists

Mbaye Diop

Mbaye Diop (b.1981, Richard Toll, Senegal) completed a master's in contemporary artistic practice at the Head School of Geneva in Switzerland as well as at the Beaux-Arts of Dakar.

Mbaye Diop is an attentive observer of the daily urban landscapes and architectural forms of Senegal and the socio-political movements that continuously redefine the links that exist between the African continent and the West. From video, performance, and drawing, to installation, the singularity of his work lies in his exclusive and almost obsessive use of black and white, allowing him to neutralize the scenes represented. His work reveals the paradigm shifts currently at play in African societies, especially the dichotomy be-

tween tradition, urban infrastructures, and new technologies that tend to transform collective life and one's relationship to the environment.

Hamedine Kane

Hamedine Kane (Mauritania, 1983) is a Senegalese artist and director living between Dakar, Brussels and Paris. His work focuses on exile, wandering, inheritance, and the awareness that stems from the post-independence political experiences of some African countries. He questions their recent history, particularly that of Senegal, and reports on its upheavals and aspirations around the notions of Afro-nostalgia and Afro-utopia. Hamedine Kane is also interested in the influence of African, African-American, and Afro-diasporic literature on polit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activism.

Amadou Sanogo

Amadou Sanogo was born in 1977 in Segou. His ancestors were Sénoufo, noble and farmers. They founded the commune of Zangorola in the area of Sikasso in the south of Mali which belonged to the Kingdom of Kénédougou (Country of Light). His academic study of fine arts paved the way for future analysis of the ethnic mores of his homeland in an aesthetically abstract and deconstructed manner. Drawing on his Malian upbringing, Sanogo delves into the tender and nuanced matters of global politics, journalism, and the justice system.

Hashel Al Lamki

Born to a Kenyan mother and Emirati father, painter, and multi-disciplinary artist, Hashel Al Lamki's art unpack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kind and their habitat, the wild and constructed. In 2011 Al Lamki received his BFA from Parsons School of Design The New School, New York City. He went on to contribute to several philanthropic collaborative projects in Central and North America. Al Lamki worked in disaster-stricken Guatemala and Haiti and within low social income communities in the US. After seven years in New York Al Lamki went on to live between Amsterdam, Netherlands, and Taos, New Mexico where he immersed himself in solution-finding for post-consumerism waste.

Sadikou Oukpedjo

Born in 1975 in Kéto, Togo, Sadikou Oukpedjo lives and works in Abidjan, Ivory Coast. His work features half-human, half-animal characters that question the notions of origin and heritage for African peoples. For Sadikou Oukpedjo, tales, cosmogony, rites, and witchcraft are all attempts and tools created by man to find his place in the world and learn to know himself. By exploring the

ambiguous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his animality, he questions our awareness of the cruelty of human relationships, in Africa and in the world. His work is driven by a constant and profound questioning of our humanity, with regard to our animality. Sadikou Oukpedjo seeks to understand the violence of history in West Africa's past.

Younes Baba-Ali

Younes Baba-Ali was born in 1986 in Oujda, Morocco, and he currently splits his time between Casablanca and Brussels. He completed his education at l'E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de Strasbourg in 2008 and at l'Ecole Supérieure d'Art d'Aix-en-Provence in 2011. He has received several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the Léopold Sédar Senghor Prize at the Dakar African Contemporary Art Biennial in 2012 and the Boghossian prize at the Belgian Art Prize Art'Contest in Brussels in 2014. His work has been showcased in numerous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biennials, such as Documenta 14 in Berlin, the Marrakech Biennale, and the Biennale of Contemporary African Art in Dakar. His artworks are part of collections in several respected institutions, including the Kanal – Centre Pompidou in Brussels, Mu.ZEE in Ostend, and FRAC PACA in France.

Amina Zoubir

Amina Zoubir lives and works between Paris (France) and Algiers (Algeria). Videomaker and visual artist, Amina ZOUBIR works on the notions of body in specific spaces. Using female, male, animal, and object bodies, those interact with urban and rural spaces around the world. Her artworks question the social and historical thoughts from the poetics and myths in the Maghreb (North Africa).

Melinda Fourn

Melinda Fourn (b. 1995) is a French-Beninese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Paris. Her art is expressed mainly through sculpture, often integrated into her installations by a series of photographs or digital objects. S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creation of jewelry and functional everyday objects, which for the artist are sculptures in their own right, charged with stories, memories, and meanings. Appropriating the shapes of these objects – from pots to stoves – she reworks their form, reverses their function, and subverts their use while adorning them like jewels.

Naomi Lulendo

Naomi Lulendo (b.1994, France) is a French-Guadeloupean-Congolese artist based in Dakar,

Senegal. With a multicultural background, the artist traveled between the Caraïbes and France throughout her childhood. From photography, ceramics, installation, and video, she uses the concept of “misappropriation” of words, meanings, objects, and identity in her work. She inventories images and symbols from various geographical spaces – from fashion imagery, kitsch decor, interior spaces, and architectural patterns, to botanical motifs to understand how they relate to a given territory, imagined or fantasized, often considered as “exotic.”

Guy Wouete

Guy Woueté grew up in Douala, Cameroon's largest city, where he studied sculpture and painting. He later moved to Brussels and Paris, where he continued his studies. He currently divides his time between Douala and Antwerp. A multimedia artist, he also research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technology at the Rijksakademie in Amsterdam. Woueté is inspired by contemporary social reality in Europe and Africa, creating sculptures, installations, and photos focusing on themes such as oppression, migration, pollution, and alienation to break down conventional attitudes that nourish discrimination.

Barthélémy Toguo

Barthélémy Toguo, born in 1967 in Cameroon, currently resides and works in Paris and Bandjoun, Cameroon. His artistic journey began with studies at the Abidjan School of Fine Arts in Côte d'Ivoire. Later, he attended classes at Grenoble's Graduate School of Art and joined Klaus Rinke's studio at the Kunstakademie in Düsseldorf. Toguo's creative pursuits, situated at the intersection of diverse cultures, delve into the dysfunctions of the world with the intention of exposing and critiquing them. His work explores the challenges faced by foreigners, migrants, and immigrants in constructing their identities.

Baudouin Mouanda

Born in 1981 in Brazzaville, Congo, Baudouin Mouanda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young photographers in Africa. Describing himself as a “photographer of life,” Mouanda creates series marked by realism, poetry, and introspective inquiries. His photographic journey began in 1993, and soon after, he commenced chronicling life in Brazzaville for local newspapers, earning the nickname “Photouin.” Emerging as a notable figure in African photography, Mouanda showcased his work on the African SAPE (Société des Ambianceurs et des Personnes Élégantes), a distinctive clothing style associated with African dandies, at the Rencontres de Bamako in 2009.

Emmanuel Daou

After training in the plastic arts at the INA “Institut National des Arts de Bamako”, he began his career as a photographer. His work is part documentary, on the borderline between journalism and art photography, with a focus on the language of signs, symbols, and other local masks. He collaborates with the local and foreign press and works on corporate and institutional commissions. In 1994, 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Djaw-mali” association, which stands for “images of Mali”. In 2009, he set up the Digital Club, a group of passionate photographers, and in 2011 he became a member and co-founder of EPP.

Mamadou Konaté

Mamadou Konaté is one of the pioneers of Malian photography. He was born in 1959 in Bamako and got into photography in 1988. Running the Kela Phox studio in Bamako, he produces reports on weddings, christenings, etc. Konaté’s photographic approach involves capturing the minutiae of everyday life in close detail. He directs his lens towards small objects, debris, and seemingly inconspicuous element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found within the ordinary and often overlooked aspects of life.

Uche Okpa-Iroha

Uche Okpa-Iroha is a doctoral student at Northwestern University in Evanston Illinois (USA) with interest in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modes and theories of representation, as they have been constructed historically but as they hold purpose and relevance for artists and scholars interrogating their societies in the 21st century. Okpa-Iroha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Lagos-based informal photography school, The Nlele Institute. He is a founding member of the Nigerian photography group known as the Blackbox Photography Collective and a founding member of the Invisible Borders Trans-African photography travel group in 2009.

Mário Macilau

Mário Macilau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and activist, best known for his photographic work and he is considered one of the “key figures” among the new generation of Mozambican artists. He was born in 1984 in Maputo. Macilau’s work has been featured regularly in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 his home country and abroad. For Macilau, photography has the power to reveal stark truths about life and to develop the social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of issues in Mozambique and elsewhere.

Ala Kheir

Ala Kheir is a Sudanese photographer. He started practicing photography as a hobby while he was finishing a degree in mechanical engineering in 2005. Ala Kheir’s photography visits different parts of Khartoum in an attempt to engage with the city where he grew up. His images use a subtle approach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the city, as well as the social/economic issues that are shaping the city now. Ala Kheir currently runs TOV (The Other Vision, a photography platform) where he continues his efforts for education, networking, and raising awareness specifically for photographers and also the general public in Sudan, aiming to advocate for photography to enable social engagement.

James Barnor

Born in 1929 in Ghana, James Barnor established his famous Ever Young studio in Accra in the early 1950s, capturing a nation on the cusp of independence in an ambiance animated by conversation and highlife music. In 1959 he arrived in London, furthering his studies and continuing assignments for influential South African magazine Drum which reflected the spirit of the era and the experiences of London’s burgeoning African diaspora. He returned to Ghana in the early 1970s to establish the country’s first color processing lab while continuing his work as a portrait photographer and embedding himself in the music scene. He returned to London in 1994.

Jihan El-Tahri

Jihan El-Tahri is an award-winning director, writer, producer, and visual artist. She is an Egyptian and French national. In 1990 she began directing and producing documentaries for the BBC, PBS, Arte, and other international broadcasters. She teaches documentary production at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e served as treasurer of the Guild of African Filmmakers in the Diaspora, Regional Secretary of the Federation of Pan African Cinema, and Advisor on Focus Feature’s Africa First Program. She is also a Mentor at the Documentary Campus.

Nirveda Alleck

Born in Mauritius in 1975, Nirveda Alleck obtained her Bachelor in Fine Arts at the Michaelis School of Fine Art, South Africa in 1997, and earned her MFA at Glasgow School of Art in Scotland in 2001. S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art residencies in Namibia, South Africa, Lebanon, Mali, France, and the USA among others. She was part of the Bamako Biennale of Photography and the RIPO Festival in Ouagadougou in 2019. She lives and teaches in Mauritius at the Mahatma Gandhi Institute Fine Art Department. In her work, Alleck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clay that tend to change color when dried on different skin colors.

Seydou Keïta

The great African portraitist Seydou Keïta lived in Bamako, Mali from 1921 to 2001. A self-taught photographer, he opened a studio in 1948 and specialized in portraiture which ultimately brought him to fame. Seydou Keïta was discovered in the West in the 1990s. His first solo exhibition took place in 1994 in Paris at the Fondation Cartier. This was followed by many others in various museums, galleries, and foundations worldwide.

Khalil Nemmaoui

Born in 1967, Khalil Nemmaoui discovered photography and the magic of the film development process in his early years. He followed scientific studies in Morocco and France. After publishing his first images in 1993, he decided to devote himself entirely to photography. He held his first exhibition in 1997. After a short period of classic humanist portraiture, he returned after a time of absence from Morocco to landscape photography with the series 'La Maison de l'Arbre (*The House of the Tree*)'. The series was nominated for the Prix Pictet 2010 and won the prize of th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at the 2011 Rencontres de Bamako. Nemmaoui has participated in several solo and collective exhibitions in Morocco and Europe. He had several artistic residencies, including the Cité des Arts in Paris in 2011.

Andrew Tshabangu

Born in Soweto in 1966, Andrew Tshabangu has g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his photography, which has been featured in numerous exhibitions. His distinctive style, characterized by surreal smoky lighting, focuses on capturing the rituals of black communities in urban Africa. Tshabangu has contributed to the education of aspiring photographers, teaching at the Children's Photography Workshop in 1995 and the Market Photo Workshop in 1998. In 2008, he conducted a photography workshop titled 'Amnesia: Platform III' at the Goethe Institut in Nairobi.

George Senga

Georges Senga was born in 1983 in Lubumbashi.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Lubumbashi in 2009 with a degree in language and commercial sciences. In 2009, he won the special prize at the second African Photo Competition in Tarifa (Spain). The same year, he exhibited at the French Cultural Center in Lubumbashi. In 2010, he is working on a series based on the forms of

what the photographer sees through abandoned objects. Curator Simon Djami of the Lubumbashi Biennale selected this series entitled "Empreintes" in 2010.



SELEBE
YOON
DARAR

TABARI
ARTSPACE

Organizer

Galerie Medina and Rencontres de Bamako

Curator

Lassana Igo Diarra

Assistant Curator

Dayana Vafina

Artists

Ala Kheir, Allé Assi Herbert, Amadou Sanogo, Amina Benbouchta, Amina Zoubir, Amsatou Diallo, Andrew Tshabangu, Bakary Emmanuel Daou, Barthélémy Toguo, Baudouin Mouanda, Georges Senga, Guy Wouete, Hamedine Kane, Hashel Al Lamki, Inouraz + Jeong Ga Ak Hoe, Jamal Mehssani, James Barnor, Jihan El-Tahri, Khalil Nemmaoui, Lanin Saint Étienne Yeanzi, Mamadou Konaté, Maria Magdalena Campos-Pons, Mario Macilau, Mbaye Diop, Melinda Fourn, Mohamed Cherradi, Mohammed Laouli, Mounou Désiré, Naomi Lulendo, Nirveda Alleck, Raji Bamindele, Sadikou Oukpedjo, Seydou Keita, Thami Benkirane, Uche Okpa-Iroha, Younes Baba Ali, Zemba Luzamba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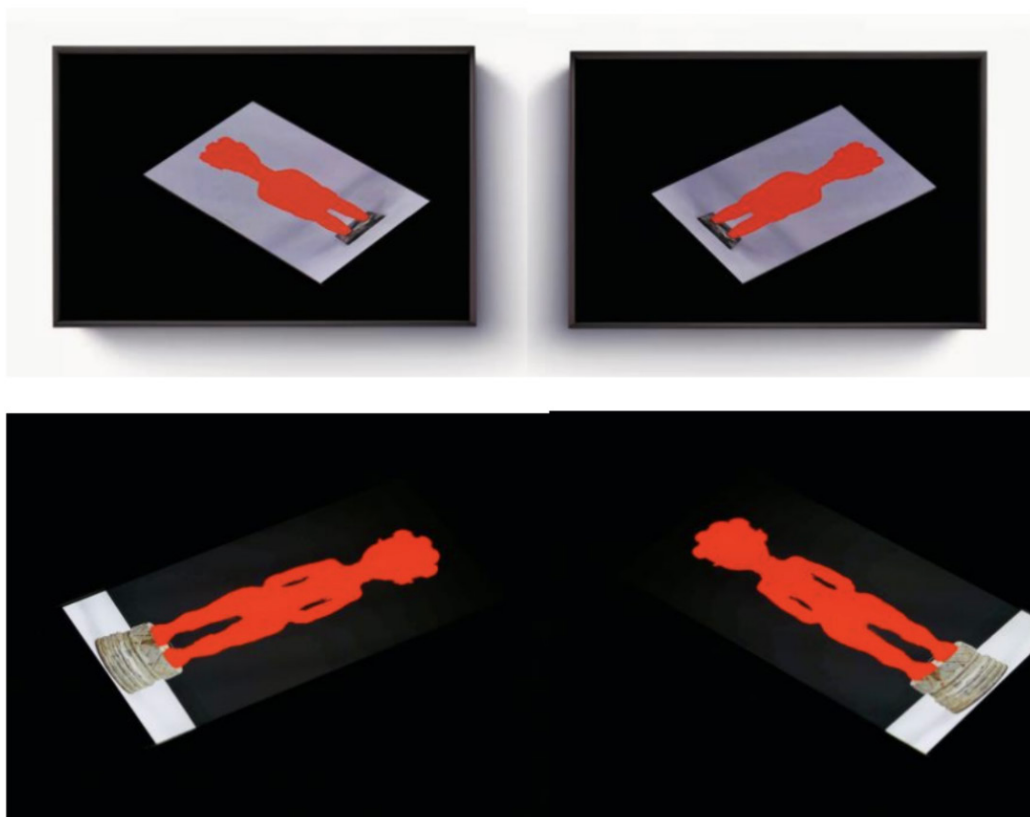
Selebe Yoon, Tabari Artspace



음바예 디오프, 콜로베인, 2021, 단채널 영상 (5,000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 영상)
Mbaye Diop, COLOBANE, 2021, Single Channel Video (animated film made of 5,000 drawings)

세네갈의 예술가 음바예 디오프(1981년생)는 아프리카의 도시를 시적이고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묘사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우 활기찬 장소를 선택했는데, 바로 매일 아침 많은 노점상들이 모이는 시장이다. 종이 위에 생동감 있는 묘사를 담은 수천 장의 흑백 그림으로 구성된 이 작품에서 예술가는 실루엣과 디테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도시의 소란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지닌 덧없고 유령과도 같은 특징을 묘사했다. 부동산 상황의 압박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이 시장은 지속적인 변형 상태에 놓인 유기체와 닮아있다.

In his work, Senegalese artist Mbaye Diop (b.1981) proposes a poetic and sociological vision of the African city, by choosing a particularly lively place where commerce is based on certain social codes: the popular market where all the street vendors stock up every morning. Made out of thousands of drawings in black and white renderings produced through a photographic transfer on paper, the artist allows silhouettes and details to emerge and reveals the evanescent and ghostly character of the action and the urban uproar. Threatened to disappear owing to real estate pressure, this market resembles a living organism in constant metamorphosis.



나오미 루렌도, 풀 스크린(네메시스), 2024, 렌티큘러 프린트
Naomi Lulendo, *Full Screen (Nemesis)*, 2024, Lenticular Impression

1994년생으로 콩고와 과들루프 출신인 나오미 루렌도는, 프랑스의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아프리카 여성 조각상의 실루엣을 검은 화면에 배치하여 상상 속 디지털 공간에 떠다니게 했다. 렌티큘러 프린트로 관람자의 이동에 따라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진다. 빨강의 단색으로 칠해진 이미지는 금지나 경고 사인과도 비슷하게 보인다. 한때 도난당하고 원래의 맥락에서 멀어졌던 사물들이 지닌 신비한 힘에 대해 경고하는 듯한 작품은 길 잃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장소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Comparably, Naomi Lulendo (b. 1994), of Congolese and Guadeloupean origins, presents African female fetishes' silhouettes, from French collections, transposed onto a black screen, floating in an imaginary-digital space. On a lenticular print, the image appears and disappears as visitors move, like an evasive form. The image, masked by a red monochrome, is similar to a prohibition or warning sign: a warning of the mystical force of these objects, which, once looted and decontextualized, raise questions about the place in which their strayed spirit dwells.



멜린다 포른, *이 지식은 내가 물려받은 것일 뿐이야*, 2021-2023, 아이폰으로 재생되는 연철과 영상
 Melinda Fourn, *I inherited this knowledge, that's all*, 2021-2023, Wrought iron and videos displayed on iPhones

몇몇 작가들은 극도로 디지털화된 환경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물과 전통적 지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1995년생인 멜린다 포른은 프랑스-베냉 혼혈 예술가로, 부르키나파소, 가나 및 세네갈을 여행하며 대규모 기술 발달과 해외 제품 수입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서아프리카 공예 기술을 자신의 작품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고대 보석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금속 조각이 매달려 있고 공예 장인의 이미지들이 낡은 스마트폰을 통해 재생되며, 현대의 정보 전달 방식과 그 방식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Some artists in this selection evoke the possible disappearance of objects and traditional know-how in the light of ultra-digitalized environments and the forces of globalization. Traveling to Burkina Faso, Ghana, and Senegal, Melinda Fourn (b.1995) a French and Beninese artist, evoked in her work artisanal techniques across West Africa threatened by massiv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imported goods. Suspended on metal pieces that evoke ancient jewelry forms, images of craftsmanship are displayed on old smartphones, questioning the modes of transmission today and the durability of certain practices.



하메딘 케인, 감성의 찬가, 2022, 하네뮐레 포토래그 사진 용지에 인쇄된 3개의 디지털 사진, 각 50x28.58cm, «바마코 2023» 시리즈에서 전시된 <감성의 찬가> 사진 모음
Hamedine Kane, *Eloge du sensible*, 2022, 3 digital photographs printed on Hahemühle Photo Rag, 50x28.58 cm (each image), Selection of photographs "Eloge du sensible" (shown during the Bamako 2023 series)

모리타니아 출신 예술가 하메딘 케인(1983년생)은 2022년 렌콩트레스 데 바마코에서 소개된 <이미지의 책, 아프리카 XXI #1, 투쟁> 시리즈에서 가져온 사진 일부를 소개하는 <감성의 찬가>를 선보인다. 이 시리즈는 생명의 세세한 움직임들을 찾아나선 관찰자가 끝없이 방황하는 여정에 대한 것으로 세네갈 중심부의 건물 잔해에서부터 프랑스의 이민자 캠프에 놓인 버려진 의자와 서아프리카 해변 아이들의 유희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절망적인 걱정스러운 상황을 배제하는 대신 고요한 장소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내밀하고 사적인 장면들을 보여준다.

In *L'Eloge du Sensible*, Mauritanian artist Hamedine Kane (b.1983) presents a body of photographs part of "The Image Book, Africa XXI #1, Struggles" formerly presented at Les Rencontres de Bamako in 2022. This series is anchored in a permanent wandering movement of the subject who observes and is on the lookout for the slightest manifestation of the living: from a ruined building in the middle of Senegal, an abandoned chair in the migrant camps of France, to children's games on the beaches of west African coasts, the artist attempts to disregard anxious, dead-end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nd instead mobilizes intimate, secret spaces of production where a revolutionary process is at play in quiet spaces.



유네스 바바-알리, 모로코의 국가, 2013, 16/9 형식의 HD영상, 2'11인치 사이클, 5판 + 2개의 AP
YOUNES BABA-ALI, *Moroccan Anthem*, 2013, HD video 16/9, 2'11" in loop, 5 ed. + 2 AP

모로코 출신 예술가인 유네스 바바알리(1986년생)는 작품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생태적 또는 종교적 시스템의 기능과 역기능을 다루며 유머를 통해 취약한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모로코의 국가>는 모로코 사회에서 주변적인 인물인 나귀꾼이 모로코의 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비춘다. 나귀가 나귀꾼의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즉 주인이 소리를 내며 전진하라고 할 때 나귀가 주저하는 모습은 나귀꾼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근본적인 괴리를 미묘하게 암시한다.

The Moroccan artist Younes Baba Ali (b.1986) highlights in his work both the functioning and dysfunction of certain political, social, ecological, or religious systems, using humor to reveal their fragile mechanisms. "Moroccan Anthem" depicts a donkey driver – a marginalized individual within Moroccan society – clucking the Moroccan national anthem. As the donkey tries to adhere to his master's orders – advance when he clucks his tongue – the animal's hesitation subtly suggests the disjunction underlying his master's stance within his society.



우체 옥파-이로하, 얼굴의 유형 프로젝트, 2020
Uche Okpa-Iroha, *Face-type series*, 2020

〈얼굴의 유형 프로젝트〉는 작가가 예술가이자 사진작가로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클로즈업, 얼굴 측면 사진을 맥락화하는 작업이다. 모델들 중에는 동료, 친구, 가족 구성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소한 대화와 오랜 설득 끝에 그들이 옆으로 돌아서서 왼쪽을 향해 포즈를 취하도록 했다. 2023년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양한 개인적 특징(표정, 흉터, 모반, 주근깨 등)을 포착하고 재현하는 강력한 방식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의 정체성을 맥락화한다. 또한 얼굴을 아프리카라는 맥락 속에서 문화와 사회적 서사를 기록하는 메타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아프리카의 역사, 문화, 전통 및 현대적인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과 여러 이주 지역에 걸쳐있는 민족 집단과 사회적 역할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 project, *Face-Type*, contextualizes the identities and closeup, side profiles of people I encounter in my quotidian engagement as an artist and photographer. My subjects include colleagues, friends, family members, and strangers who, through casual conversations and arduous negotiations, are asked to pose for a shot, standing on their side and facing leftward. This ongoing project (2023) contextualizes African identities through a powerful way to capture and represent the diverse personality traits (facial expressions, scars, birthmarks, freckles, etc.) and experiences using the face as a metaphor to ascribe cultural and social narratives within the African context. In so doing, I seek a deeper understanding of African history, cultures, traditions, and contemporary issues and to familiarize myself with the diverse ethnic groups and social dynamics across different regions of Africa and the diaspora."



니르베다 알렉, 가면무도회 I, II, III, 2019
Nirveda Alleck, *Masquerade I, II, III (Triptych)*, 2019

〈가면무도회 I, II, III〉는 2019년 5월 흰색 플라스틱, 식물, 피그먼트로 만든 상상 속 땅덩어리를 둘러싼 퍼포먼스 〈베리에이션 인설라리스 III〉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이 사진 시리즈를 위해 몸에는 갈색 점토를 바르고, 인도 신화의 신비로운 존재이자 힌두교 삼위일체의 주요 신 중 하나인 비슈누를 연상시키는 야생 멧돼지 갑옷을 입도록 했다. 여기서 갑옷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로 작용하며, 피부색에 대한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인식과 개인이 내면에 간직하는 보다 깊은 어떤 것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낸다. 인물 사진은 점토를 바르는 것으로 인해 본인의 피부색이 지워지는 역전된 과정을 통해 피부색을 더욱 강조하며, 이는 누군가의 피부색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반응 경향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만든다.

Masquerade I, II, and III (2019) is a project that started with a performance that I did titled “Variations Insulaires III” in May 2019, around a fictional landmass made up of white plastic, plants, and pigments. For this series of photographs, the bodies were covered in brown clay, and wearing an armored structure that resembled the shape of a wild boar- itself a mythical creature that comes from Indian mythology and is an incarnation of one of the Hindu trinities- Vishnu. The armor here acts as a shield to preserve the sanctity of each individual, creating a barrier between an instinctual reading triggered by skin color, to something much deeper than the individual holds within himself. While the portrait highlights the skin tones through the inverse process of erasure inherent with the act of applying clay, it also prompts questions about our own predisposition to respond to the reading of an individual through the color of his/her skin.

